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렇게만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 ㉠ 가지에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두는  
저 급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 ㉡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 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 담은  
무명에 일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박\*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박: 함께 도를 닦는 벗.

(나)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육고 삭아 없어지고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틔우고 꽃피우며 /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

(다)

㉣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비꽃은 결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서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들은 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잣대로 자기중심적인 평가를 한 것일 뿐입니다. 벌레들을 보고 해충이니 익충이니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꽃들은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간들 앞에서 그저 스스로 아름다울 뿐입니다.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 줍니다.

만일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을 진정한 봄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만일 제비꽃이 나팔꽃이나 목련처럼 피어난다면 그것은 봄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 때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비극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 꽃밭에 오로지 제비꽃만 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비꽃은 개나리와 민들레와 산수유와 함께 피어나야 꽃밭이 아름다워집니다. ㉥ 한 가지 꽃만 피어 있는 꽃밭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중략)

꽃밭이 아름답기 위해서도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비꽃이 혼자 아름답다고 해서 꽃밭 전체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전체와 어울리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비로소 제비꽃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거나 닳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피어나 오직 조화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이든 듯이 나 또한 이대로 나 자신이면 됩니다. ㉦ 아무리 남의 장

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통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됩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똑같습니다.

- 정호승,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작중 상황에 대한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유사한 성격의 소재들을 활용하여 대상에 부여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인간과 자연의 대조적 모습을 통해 자연이 지닌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자연물을 통해 인생사의 의미를 유추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수량의 늘어난 가지'가 담을 넘어서는 모습에 주목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협력뿐만 아니라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나)는 '버팀목'이 쓰러진 나무를 지탱해주는 상황에 빗대어 다른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노래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비'와 '폭설'은 수량의 늘어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응원해 주는 존재이겠군.
- ② (가)에서 '애먼 뿌리'와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수량 가지'보다 더욱 노력한 대상들을 의미하는군.
- ③ (나)에서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는 쓰러진 나무가 죽은 '버팀목'을 지탱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군.
- ④ (나)에서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이 '버팀목'으로 만져진다는 것은 '버팀목'을 통해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인생사의 의미를 유추한 것이겠군.
- ⑤ (가)에서 '담을 열 수 있다'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에서 '씩뿔우고 꽃피우며 /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버팀목'을 넘어서야 한다는 삶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군.

3. ㉠과 ㉡에 대한 (다)의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스스로의 가치를 빛내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를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는 ㉠로 구성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를 ㉠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선의 경쟁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시련과 고난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지'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죽은 버팀목이 지닌 한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자신이 지닌 단점을 인정해야만 남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작가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문장 구조, 문법적 요소, 어휘의 의미 등 언어의 여러 요소를 활용한다. 특히 대상을 수식하는 부사어나 관형어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작가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다양한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의 '무엇보다'와 '그러니까'는 가지가 담을 넘는 데에는 '비', '폭설'보다 '담'의 역할이 더 컸음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겠군.
- ② (가)의 '도박'과 '도반'은 '가지'에게 담을 넘는 것은 위험한 도전인 동시에 '가지'에게 '담'은 동반자라는 점에서 '담'이 지닌 이중적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겠군.
- ③ (나)의 '산'과 '죽은'은 '죽은 나무'인 '버팀목'이 '산 나무'에 힘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겠군.
- ④ (나)의 '다시'는 '버팀목'으로 인해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상황을, '이웃'은 제 역할을 다한 '버팀목'이 삭아 없어지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겠군.
- ⑤ (다)의 '만일'이라는 가정의 표현과 '~답게'라는 특정 접미사의 반복적 사용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만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겠군.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낭랑은 말을 마치고 옥잔의 술을 주면서 먹으라고 권하였다. 은하 낭자가 그 술을 받아서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며 백병(百病)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힘이 능히 구정(九鼎)을 들고 날아서 북해를 뛰어넘을 듯하게 되었다. 은하 낭자가 낭랑에게 사례하였을 때, 문득 ㉠청의시녀(青衣侍女)가 천상에서 주름을 주르르 걷는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깨고 보니 옥중에서 꿈 꾸고 있었다. 은하 낭자가 그 꿈 이야기를 한즉 시비들이 낭자를 붙잡고 기뻐하여 마지 않았다.

유자사는 백학선을 찾으려고 남자로 변복한 조 소년을 오래 옥중에 가두고 추궁하였으나, 그의 철석간장을 굽히지 못하여 주야로 근심하다가 하루는 홀연히 깨닫고,

“소년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도 잔인하다. 백학선 잃은 것도 또한 하늘이 주신 운수니 할 수 없다.”

하고, 조 소년을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러나 은하 낭자는 옥중에서 수척한 심신이 일시에 긴장이 풀리는 통에 새로운 충격으로 기절하였다. 시비 춘낭이 정성껏 간호한 공으로 낭자가 소생하여 꿈에 본 천상의 일을 생각하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사모하는 천정배필인 유한림과 만날 희망을 품게 되었다.

출옥한 은하 낭자는 유한림을 찾으려고 곧 **정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수십 일 만에 **수백 리**를 갔으나 기력이 더욱 좋아져서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계속 길을 달려갔다.

하루는 도중에서 홀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다행히도 시비 춘낭이 아는 형주 사람이었다. 춘낭이 반가워하면서 순무어사의 소식을 물었다.

“그 유 어사께서는 신병으로 황제께 상표(上表)하고, 지금 고향으로 휴양하신다더라.”

춘낭이 낙망하고 은하 낭자에게 그 사실을 전하자, 낭자가 깜짝 놀라며,

“네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니 다시 자세히 물어보라.” 하고, 반신반의로 근심하였다. 춘낭이 다시 아는 사람에게 물었다.

“유 어사께서 병환으로 고향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군관으로서 직접 호송해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 말을 다시 춘낭에게 전해 들은 은하 낭자는 할 수 없이 **길을 돌이켜서 남경**으로 향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가달이 남경을 침입하자 유백로는 남경으로 간 조은하를 찾기 위해 출전하지만 최국양이 군량 보급을 끊어 적군에 사로잡히고, 최국양의 참소로 유 상서 부부도 옥에 갇힌다.

㉢노복이 품에 깊이 간직하였던 조은하의 봉서를 꺼내었다. 두 팔이 결박된 유 상서는 노복에게 편지를 퍼서 들라고 하고 여자 글씨의 사연을 읽어 내렸다.

‘박명죄첩 조은하는 돈수백백하옵고 감히 한 장의 글월을 좌하에 올리옵나이다. 어린 죄첩이 어려서 외가에 갔삼다가 우연히 길에서 낭군을 만나 백학선을 주기로 어린 마음에 귀히 여겨서 받았삽더니, 어찌 그것이 신물인 줄 알았겠습니까.

나이가 장성하여서 그 **부계의 맹약서를 보옵고 굳게 절을 지켜왔**삽더니, 저 ㉣최국양의 암행(暗害)로 자사가 잡고자 하므로 부모와 망명 도주하다가, 부모는 친리 객지에서 억울하게 구물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외롭고 약한 여자로서 망극하고 살아갈 가망이 없어서 부모의 뒤를 따라 죽고자 하였습시다마는, 그러나 저마저 죽자오면 부모의 후사가 멸할 것을 깨달아 참고 지내옵던 바, 낭군의 소식을 알 길이 없사와 **부득이 남자로 변복하고 유리포박**하옵다가 천만의외에 망극하온 소식을 듣잡고 정신이 아득하와 낙망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 시부모님 전에 면목을 하옵나니, 한번 만나 뵈옵도록 허락하시와 구천(九天) 타일(他日)에 여한이 없게 하소서. 쓰기를 임하와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정신이 산란하와 대강 기록하나이다.’

유 상서 부부가 편지 사연을 본 뒤 은하 낭자의 가련한 정상에 여러 번 탄식하고 기절할 것 같았다.

“대감마님, 양위께서는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고 귀체를 보중 하소서. 명천이 굵어 살피심이 있사오니 후일에 다시 좋은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다. 수고하였다. 너는 빨리 돌아가서 조소저에게 전하되, 나는 명도(命道) 기구하여 한날 자식을 두었다가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하고, 부자가 남북에 갈려서 죽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이처럼 위무해 주니, 그 뜻은 고마우나 이곳이 외인은 통하지 못하는 옥중이니 어찌하랴. 더구나 내가 기주 자사로 있을 때에 소저의 정행 성덕(正行成德)을 알지 못하고 수월 동안에 **옥중에서 참경을 당**하게 하였는데, 이제 생각하니 참피하여 마지않거니와, 나의 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 어찌 서로 만날 수가 있으랴. 소저는 나를 만나볼 생각을 말고 길이 귀체를 보중하시라고 전갈하여라.”

유 상서는 긴 탄식을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말을 이었다. “내 몸이 옥중의 죄수가 되어서 지필이 없어 회답을 쓰지 못한다는 뜻도, 네가 본 대로 전갈하라.”

하고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다. 노복은 옥중의 상서 부부를 하직하고 급히 돌아와서 은하 낭자에게 사실대로 전하였다. 낭자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비 오듯 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튿날 일어나서 또다시 곱곰이 생각하였다.

‘내 팔자가 이같이 기박하고 무상하니, 세상에 있어도 소용이 없다. 차라리 남경으로 가서 가군(家君)을 찾아서 함께 죽어서 혼백이나 의지함이 옳다.’ 하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착잡하게 동요하는 마음은 또다시 새로운 각오로 변하였다.

‘요전에 ㉤주막 주인의 점괘가, 유한림의 죽을 운수도 그 아내되는 자가 힘써 구하면 요행으로 살 수 있다 하였으니, 이제 **자원 출전하여 가군의 사생을 알아**서 만일 불행히 세상을 버렸으면 그 해골을 거두어 선산에 안장하고, 그 뒤를 좇아 혼백이나 서로 의지하자. 요행으로 살았으면 기필코 구해서 돌아와야겠다. 이런 중대한 시기를 내가 어찌 방 안에서 썩은 풀과 같이 헛되어 버릴꼬냐?’ 하고 굳은 결심을 한 은하 낭자는 그 이튿날 그 고마운 시가댁 구복(舊僕)의 집을 떠나서 황성으로 올라갔다.

- 작자 미상, 「백학선전」 -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중심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중심인물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이 지닌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을 통해 중심인물이 겪는 고난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중심인물이 변화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관들은 자신들의 말을 못 믿는 조은하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 ② 조은하는 자신이 꾸 꾸를 기반으로 유 어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 ③ 유 어사는 황제의 명에 의해 벼슬에서 물러난 후 고향인 남경으로 돌아갔다.
- ④ 유 상서는 노복에게 자신이 옥에서 풀려난 후에 은하를 만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 ⑤ 유 상서는 조은하를 옥에 가두었던 자신의 행위를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8. ㉠~㉣의 서사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특정 인물에게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특정 인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두 인물을 연결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여러 인물과 갈등을 형성하여 그 인물들에게 위기를 초래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은 중심인물이 취할 행동을 다양한 가정을 통해 제시하여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이 작품은 '백학선'이라는 부채를 매개로 서로를 천정배필이라 여기는 유백로와 조은하가 이별 후 재회하는 과정을 그린 애정 소설이다. 두 남녀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재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계속 엇갈리는 상황으로 인해 재회가 지연된다. 결국 두 사람은 재회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는데, 이 작품에 나타나는 '군담 화소'는 국가의 위기 해결이라는 대의보다 두 사람의 재회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당대의 지배적 가치관인 유교적 이념보다 애정을 중시하는 개인적 가치관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 ① 조은하가 '청주로 '수백 리'를 가다가 '길을 돌이켜 남경'으로 간 것은, 유백로와의 재회를 포기하지 않는 조은하의 집념을 보여주는군.
- ② 조은하가 '옥중에서 참경을 당'한 것은 유백로와 조은하를 만나지 못하도록 유자사가 엇갈리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군.
- ③ 조은하가 '부득이 남자로 변복하고 유리표박'한 것은 유백로와 재회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은하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 ④ 조은하가 '자원 출전하여 가군의 사생을 알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위기 해결이라는 대의보다는 자신의 애정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⑤ 조은하가 '부채의 맹약서를 보습고 굳게 질을 지켜왔다'는 것은, 자신에게 '백학선'을 정표로 준 유백로를 천정배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래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 초시는 이내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소매를 내려다 보는 그의 얼굴은 날래 들리지 않는다. 거기는 한 조박의 녹두 빈자나 한 잔의 약주로써 어찌지 못할, 더 슬픔과 더 고적함이 품겨 있는 것 같았다.

후후 소매 끝을 붙어보고 손끝으로 튀겨보기도 하다가 목침을 세우고 눕고 말았다.

"이사는 팔하고 사오는 이십이라 천이 되지…… 가만…… 천이라? 사로 했으니 사천이라 사천 평…… 매 평에 아주 줄여 잡아 오 환씩만 하게 왜두 사 환 칠십오 전씩이 남으니, 그럼…… 사사는 십륙 일만 육천 환하구……"

안 초시가 다시 주먹구구를 거듭해서 얻어낸 총액이 일만 구천 원, 단 천 원만 들여도 일만 구천 원이 되리라는 셈속이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큰문출판 국어연구소에 있습니다.

니, 만 원만 들으면 그게 얼마가?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이마가 화끈했다. 도사렸던 무릎을 열른 곧추세우고 뒤나 보려는 사람처럼 쪼그렸다. 마코 갑이 변연히 빈 것인 줄 알면서도 다시 집이다 둘러보았다. 주머니에는 단돈 십 전, 그도 안경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 딸에게서 사오십 전씩 얻어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보내고 말던 최후의 십 전, 안 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내었다. 백통화 한 푼을 엮은 야윈 ㉠ 손바닥, 가만히 떨리었다. 서 참위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잔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전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 참위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 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 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낮으로 다시 한 번 세상에 부딪혀 보려니 믿어졌다.

(중략)

일 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삼천 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딸이** 신문에,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삼십 배가 올랐으니 오십 배가 올랐으니 하고 줄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애,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축항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일 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려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밀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 다리**는 그저 못 고치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십 전짜리는커녕 단 십 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다.

[B]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래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 초시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붙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리었다. 서 참위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 에들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무르녹고 말았다.

참위는 머리가 멍-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 잘하는 안 초시를 한번 위로해 주려, 잊지않는 데리고 나와 **청요릿집으로, 추탕 집으로 새로 두 집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 술 뜨기는 했으나 혀도 그냥 뻑뻑하다. 안 초시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하고 부지런히 내려와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 **베밭**이 아직 내어걸리지 않았다.

“이 사람 봐야…… 어느 뎨 줄 알구 코만 고누…….”

그러나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단이를 밀어젖힌 서참위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안 초시의 **입에는 피, 얼굴은 젖빛**이다. 방 안은 움 속처럼 음습한 바람이 훑- 끼친다.

“아니……?”

참위는 우선 미단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시를 들여다보았다. 안 초시는 벌써 아니요, 안 초시의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 **약병**인 듯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다.

참위는 한참 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히!”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아니야요, 아스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저…….”

“저라니?”

“제 명에도 줌…….”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될 말이지, 명엘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로 세상에 떠나게 해?”

“…….”

안경화는 얼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 참위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 이태준, 「복덕방」 -

10.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안 초시’는 서 참위에게 신세를 지면서도 그가 하는 일을 폄하한다.
- ② ‘안 초시’는 땅 투자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안경화에게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③ ‘서 참위’는 안 초시의 죽음에 대한 안경화의 태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 ④ ‘안경화’는 아버지의 죽음보다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⑤ ‘안경화’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려는 서 참위를 말리면서 전전긍긍한다.

1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조각구름'을 보며 '때 묻은 적삼'을 떠올리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때 묻은 적삼'과 유사한 분위기의 풍광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③ [A]에서 트여 있는 '하늘'을 관찰하는 인물의 모습이 [B]에 반복되는 것을 통해 인물의 간절한 소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A]에서 '때 묻은 적삼'과 관련하여 인물이 취한 행동이 [B]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통해 인물의 심경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A]에서 '늑두 빈자나 한 잔의 약주'를 떠올렸으나 [B]에서는 아무 음식도 떠올리지 않는 변화를 통해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인물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안 초시의 마른 외양과 경제적 빈궁함을 함께 드러내는 것으로 안 초시의 초라한 처지를 보여주는 소재이다.
- ② ㉡: 당시의 땅 투기 열풍을 짐작할 수 있는 곳으로 땅 투자에 대한 안 초시의 기대감과 조바심을 증폭시키는 공간이다.
- ③ ㉢: 북덕방의 비일상적 변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서 참위가 안 초시의 죽음을 직감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 ④ ㉣: 안 초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안 초시의 비극적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 안경화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 곳으로 안경화의 위선적인 면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북덕방」은 일제 강점기 서울의 한 북덕방을 배경으로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노년 세대의 꿈과 좌절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노인은 모두 구한말의 인물들로 변화한 현실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했으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주인공 안 초시는 죽음의 전말을 알리지도 못한 채, 비극적 죽음을 맞는다. 이런 점에서 소설의 배경이 되는 '북덕방'은, 북덕방(福徳房)의 의미가 '복(福)과 덕(德)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물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동떨어진 장소라는 반어적 의미를 띤다.

- ① '관변 모씨에게' 측은 박희완 영감과 '축향이 된단 말'만 믿은 안 초시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노년 세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 ② '북덕방'이 '다시 한 번 내 집을 쓰게 되'기를 바랐던 안 초시가 죽는 순간까지 '잠까지 빌려' 잔 공간이었다는 데서 북덕방이 지닌 반어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 ③ 끝내 '안경다리'를 고치지 못한 채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인 상태로 발견되고도 '관청에'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지조차 못한 데서 안 초시가 맞은 죽음의 비극성이 드러나는데.
- ④ 안 초시가 '단 천 원만 들여도 일만 구천 원이 되'리라는 썬크'으로 시도한 일이 '친자 간의 의리'를 도려내는 결과로 이어진 데서 노년 세대의 꿈과 좌절이 드러나는데.
- ⑤ 안 초시의 좌절을 위로하기 위해 '청요릿집'으로, 추탕 집으로 새로 두 집을 치도록 돌아다니던 서 참위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나는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니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같이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뵈오려뇨 <제1수>

친년(親年)은 칠십오(七十五)요 영로(嶺路)는 수천 리요  
 돌아갈 기약은 갈수록 아득하다  
 아마도 잠 없는 중야(中夜)에 눈물겨워 하노라 <제2수>

적리(謫裏) 광음은 사 년이 벌써 되고 친외(天外) 가향(家鄉)은 만 리에 아득하니  
 몸이 못 가거든 기별이나 들었으면  
 아무리 척홀첨망(陟屹瞻望)\*을 말라 한들 어쩔손가 <제4수>

동산에 올라보니 고국도 멀구나  
 태행(太行)이 어디인가 구름이 험하구나  
 갈수록 애일촌심(愛日寸心)이 여림심연(如臨深淵)\*하여라  
 <제7수>

내 죄를 아옵거나 유찬(流竄)이 박벌(薄罰)\*이라  
 도처 성은(聖恩)을 어이하여 갚을런가  
 노친(老親) 널리 헤아리시고 하 그리워 마옵소서  
 <제10수>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 일월이 가까우샤 하토(下土)를 비추시니  
 아모라타 우리 모자지정을 살피실 제 없사오라 <제11수>  
 - 이담명, 「사노친곡」 -

- \* 척홀첨망 :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봄.
- \* 애일촌심 : 부모님을 모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함.
- \* 여림심연 : 깊은 못 가에 있는 듯 조심스러움.
- \* 박벌 : 가벼운 벌.

(나)  
 노친 소식(老親消息) 내 모르니 내 소식 노친(老親) 알까  
 천산만수(天山萬水)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누가  
 헤아릴까

물노라 밝은 ㉡ 달아 양지(兩地)에 비추느냐  
 마르고자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시내 되어 집 앞에 두르고자  
 나는 듯 새가 되어 창전(窓前)에 가 노닐고자  
 내 마음 헤아리니 노친정사(老親情思) 일러 무엇하리  
 ㉢ 여의(如意) 잃은 용(龍)이요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秋風)에 낙엽같이 어디로 가 지박(止泊)할까  
 제택(第宅)도 파산(破散)하고 친속(親屬)도 분찬(奔竄)하니  
 도로(道路)에 방황(彷徨)한들 갈 곳이 전혀 없네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수시나  
 ㉣ 일점의리(一點衣履)\* 살피더니 어느 자손 대신할까  
 나 아니면 누 모시며 자모(慈母) 밖에 날 누 사랑할까  
 남다른 모자정리(母子情理) 수유 상리(須臾相離)\* 못 하더니  
 조물(造物)이 미워하십인가 이토록 떨어뜨렸는가  
 말로장신(末老藏身)\* 덜 했던가 석일건양(昔日愆殃)\* 못 끼  
 쳤던가

㉤ 친명인가 가운(家運)인가 누 탓이라 원망할까  
 (중략)

독신(獨身)이 무후(無後)하여 시측(侍側)에 의탁(依托) 없어  
 ㉥ 무한(無限)한 애만 쓰여 불효(不孝)도 막대(莫大)하다  
 자탄신세(自歎身世) 하릴없어 차라리 잇자 하되  
 한을 삼켜 솟는 정이 끝끝마다 절로 나니  
 ㉦ 긴긴 낮 깊은 밤에 천 리 상사(千里相思) 한결같아  
 하루도 열두 때오 한 달도 서른 날에  
 날 보내고 달 지내어 하마 거의 반년일세  
 이러구러 해포 되면 사나 마나 무엇할까  
 고탁(苦樂)이 순환하니 어느 날에 돌아갈까

천상금계(天上金鷄)\* 울어 예면 웃음 웃고 이 말 하리  
 아마도 우리 성군 효리하(孝理下)에 명춘(明春) 은경(恩慶)  
 미치소서  
 - 이광명, 「북찬가」 -

- \* 일점의리 : 한 벌의 옷과 한 켤레의 신발.
- \* 수유상리 : 잠시 서로 떨어져 있음.
- \* 말로장신 : 나이 들어 몸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음.
- \* 석일건양 : 지난날의 재앙. 작자가 유배당하기 25년 전 백부인 이 진유가 역률로 다스려져 유배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
- \* 천상금계 : 사면령을 가리킴.

1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자연현상에 빗대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② <제2수>는 대구를 통해 상황을 제시하면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제4수>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대상을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10수>는 원인과 결과의 진술을 통해 대상의 처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11수>는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위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의 유배로 인해 생겨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② ㉡ : 형제와 후손이 없는 화자가 평소에 노모를 정성껏 보살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자신의 잘못을 열거하며 자책하는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 ④ ㉣ : 노모를 가까이서 모실 사람이 없는 상황을 불효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 ⑤ ㉤ : 노모에 대한 걱정을 한시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16. ㉡와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의 소식을 노친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이다.
  - ② ㉡와 ㉢는 모두 노친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해소해 주는 존재이다.
  - ③ ㉡와 ㉢는 모두 화자의 처지를 변화시켜줄 절대적 존재를 비유한 것이다.
  - ④ ㉡는 화자에게 기원의 대상이 되는, ㉢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이다.
  - ⑤ ㉡는 화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는 노친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하는 존재이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와 (나)는 모두 작가의 유배체험을 읊은 시가로, 유배는 죄인을 근거지와 분리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곳에 살게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초래하는 형벌이다. (가)의 작가 이담명은 조정의 고관이었다가 숙종조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나)의 작가 이광명은 백부인 이진유의 정치적 몰락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은둔하였지만 결국 이진유의 죄에 연좌되어 유배되었다는 점에서 입장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가)와 (나)는 유배지에서 노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애절한 마음, 성운에 대한 예찬, 유배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 등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살피실 제 없사오랴'와 (나)의 '어느 날에 돌아갈까'에는 모두 유배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영로는 수천 리'와 (나)의 '천산만수 막힌 길'에는 각각 유배로 인한 공간적 거리감과 공간의 단절감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드러나 있군.
- ③ (가)의 '구름이 험하구나'는 숙종조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의 '말로장신'은 정치와 거리를 두고 은둔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 ④ (가)의 '몸이 못 가거든 기별이나 들었으면'과 (나)의 '흐르는 시내 되어', '나는 듯 새가 되어'에는 모두 노모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애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군.
- ⑤ (가)의 '유찬이 박벌이라'에는 유배의 형벌을 내려준 임금의 은혜를, (나)의 '천상금계 울어 예면'에는 화자를 유배에서 풀어줄 때를 가정하여 임금의 은혜를 예찬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군.